

성탄절  
설교

## 구세주의 표적

<누가복음2:1~14>



주 문 홍 목사 (고쿠라교회)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기적은 성서 그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변태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구세주의 목격자·증인에 의해 써어진 최초의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황제』에게만 적용하는 명칭이고 황제의 후계자 탄생 소식이 「복음·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황제승배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대립한것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서는 로마제국 세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강단을 전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본문을 대하면 수천년에 걸친 가혹한 고난을 회상하게 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황제의 호적등록령은 지배자로 부터 언젠가 닥칠 세금과 징병·징용으로 이어지는 재난의 소식이요 출산·직전의 산모도 면 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무자비한 명령이었습니다.

누가의 성탄이야기는 부조리에도 복종할수 밖에 없는 백성이 조상의 고향에 와서도 환영받지 못해 가축창고에 들어가는 — 현대에도 낯설지 않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황제와 젖먹이 아기, 궁정과 마구간, 칙령과 천사의 소식은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기와 같이 무력하고,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작은 존재, 이후고 먹이감이 될 이름도 없는, 무가치에 가까운 존재에 「구세주」의 표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현자가 「메시아의 별」에 인도받아 순례 길에 나섰고 구세주를 경배한 후에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전합니다. (마태2:12) 구세주를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물통에 뉘여진 아기에게서 메시야의 별을 찾아내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여기에 성탄의 기쁨, 축하의 깊은 의미가 있는것이 아닌지요!

오키나와 이에지마에 있는 교회는 작은 집자가가 없으면 민가로 보이는 회당이었습니다. 규슈교구에서 십 여명과 지역주민으로 만원이 된 회당에 출입구의 신발을 정리하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집회의 주변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 분이 주임목사인것을 인식한것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키나와의 간디」라고 불리던 아하곤쇼코씨와 더불어 생명운동을 이끌어 간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몇년후 그의 소천소식을 접하고 귀중한 분을 잃어버렸다는 서운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악수도 교제도 없었던 분이었는데... 그 때의 모습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지방회에 있을 무렵, 휴가길에 관서지방의 재일대한기독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일예배 출석자는 목사님 부부만이었습니다. 전전 전후 많은 재일동포가 거주했지만 점점 떠나가는 빈 마을과 역사의 과수꾼처럼 보였습니다. 미소짓는 목사님의 그을린 얼굴은 농부였습니다. 교회터에 채소와 호박을 재배하고 있고 이 놈들이 교회신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30세에 세도나 이카이를 훠리로 건너 찾아간 첫 목회지는 시내에서 격리된 쓸쓸한 마을이었습니다. 목사가족만의 예배가 빈번했고 주일을 맞이하는 것은 시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것 같은, 일어나지도 않을것 같은 불안에 빠져 전전궁궁하던 중 관서지방에 비슷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웬지 위로가 되어 편지를 띠었더니 교회터에서 수확한 호박을 보내왔습니다. 수년후에 그 때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의 고분분투의 빛이 멀리까지 전해왔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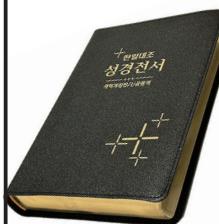
규슈에서 강제연행·노동희생자의 무덤, 추도비와 만난 것은 복된 일이었습니다. 한시대의 지배자에 의해 이주를 강요당하고 이윽고 빼만 남고 무명·불명 유골로 된 백성을 기억, 중언, 기록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어졌습니다. 잊혀지고 無에 가까운 존재에 새로운 눈이 떠진 것은 임마누엘의 주님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세례를 받기 전에 반공, 자본주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눈이 뜬것은 「재일의 현장」이었습니다. 가가와현에서 재일2세 남성은 사회로부터 거절당한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목사에게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전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다고. 자신의 아성에서 정신적 승리에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스스로를 돌아다보니 조총련계 동포를 경계하고 천황제 일본에 위축당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목회의 나날에 조조하고 불안해 하는 것은 세상 세례의 가치관에 둑여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0년 「재일의 길」을 통해 성탄의 빛이 보다 낮은 곳에 있는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찾아간 시록쿠, 중부, 큐슈의 교회 사정은 기대할 만한 좋은 조건은 적고 자신도 심신이 약해졌습니다. 어둠에 쌓인 현실이지만 그 분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앞날의 기대도 부풀어 지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訳)、  
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 価格: 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 이단종교대책 세미나 개최 사이트아츠시목사 강사로 컬트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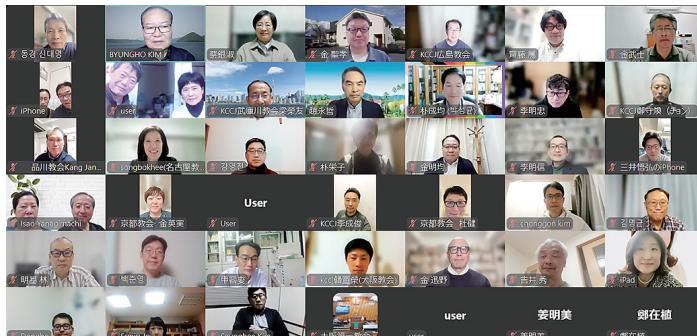
지난 11월15일(금) 오후7:30분부터 9시경까지, 선교 위원회 주최의 이단 종교 대책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52명이 참가하였다.

이번에는 일본기독교단 센다이미야기노(仙台宮城野) 교회의 사이토 아츠시(齋藤篤) 목사를 강사로 맞이하여 일본 사회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단·컬트 문제를 배울 기회를 가졌다.

사이토 아츠시 목사는 청소년 시절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경험도 있어 간증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될 줄로 예상했지만, 이단과 컬트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旧통일교에 의해 일어난 사회 문제와 일본 정부에 의한 법적 대응 등, 폭넓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우리들이 <이단>과 <컬트>를 혼동하고 있는 것과 <이단종교 2세> 문제 및 <정치 컬트> 등, 알기쉬운 어조로 가르쳐 주었다.

가장 인상에 남은 이야기는 사이토목사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동기가 청소년 시절 친구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친구의 가정은 크리스챤이었고,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너를 위해 기도할께”라고 했던 말을 떠올라 교회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크리스챤으로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교회는 삶은 기색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단이나 컬트 집단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힌트를 얻은 것 같다.

(보고 : 위원장 조영철목사)



## 선교협약 40주년 연수회 인근 일본기독교단 교구와 합동으로

제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 <선교 협약> 40주년 기념집회가 9월 16일 오사카교회에서 열린것에 이어 관동지방회에서는 인근 일본기독교단 교구와의 교류 40주년을 기념하여 11월 11-12일 낫코 올리브노사토에서 1박2일 연수회를 가졌다.

관동지방회에서는 김용소 지방회장을 비롯한 11명, 일본기독교단에서는 6개 교구(奥羽、東北、関東、東京、西東京、神奈川)에서 12명, 총 23명이 모여 예배, 강연, 발제 등을 통해 <선교협약>의 실질적 협력과 교류의 역사를 되새겼다.

강연은 김신야목사(관동지방회 부회장, 요코스카교회)가 <폭력의 세계에서 온유하게 살아가기 – 예수의 화해의 삶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혐오, 전쟁, 장애인 무차별 살인 등이 <다문화 공생>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혐오의 원인 분석과 함



(보고 : 전도부장 조영철목사)

축된 뜻에 대해서, (1) <경청> 통하여(예수님의 경청의 힘으로 생각하기), (2) <분노>의 행방(예수님의 공감에 대해 성서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3) <화해>를 둘러싸고 –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발제에는 김병호 목사의 기조보고를 시작으로 일본기독교단 인근 교구에서 각 교구와 관동지방회 교회와의 교류사례를 발표했다. 과거 재일대한기독교회는 교회가 없는 현청 소재지에 개척전도를 한다는 방침으로 개척된 <仙台教会>(宮城県)、「浦和(大宮)教会」(埼玉県)、「水戸教会」(茨城県)、「三沢教会」(青森県)、「新潟教会」(新潟県)、「つくば東京教会」(茨城県)、「日立教会」(茨城県)、「山形ウリ教会」(山形県)、「北上ベテル伝道所」(岩手県)、「郡山伝道所」(福島県) 등지에 교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기독교단 지역 교구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의 결실이었다.

관동지방회와 각 교구와의 교류는 코로나 등으로 10년 정도 실행하지 못했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1년에 한 번은 교류회 듣지 협의회를 가지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보고 : 김병호목사)



## 관서지방회 아슈람기도수양회를 개최 정연원 목사(오사카교회)를 강사로

관서지방회 전도부 주최 2024년 아슈람기도수양회가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과 기도”(왕하 20:1-3)라는 주제로 11월 3일(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오사카 북부교회 (조영철목사 담임)에서 개최되어 62명이 참가했다.

이번 아슈람기도수양회는 전도부장 조영철목사(오사카북부교회)의 인사로 시작되어, 김종현 목사(나니와교회)의 개회기도, 교토교회 청년회 찬양팀에 의한 찬양의 시간, 그리고 1983년부터 일본에 선교사로서 파송받아 오랜 세월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11월 10일 은퇴하는 강사 정연원목사 (오사카교회)에 의한 말씀의 시간으로 주제에 근거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 후에 강우열 목사(나라교회)에 의한 찬양의 시간, 박영자 목사 (토요나카제일부흥교회)에 의한 간증의 시간이 있었고, 이어서 박시영목사(오사카 치코교회)의 사회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는 3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①개척전도와 교회 성장을 위해(배정애 목사, 히라오카교회), ②청년과 어린이들을 위해(한선영목사, 오사카교회), ③전쟁과 자연재해를 기억하며(송남현목사, 오사카제일 교회) 대표로 기도를 드렸고, 그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다.

마지막으로 지방회장 박영자 목사의 폐회기도로 이번 아슈람 기도 수양회를 마쳤다.



## 한·재일선교협의회 개최 30년간의 선교협의회 발자취를 돌아보고

1995년 전국교회여성연합회와 예장여전도회전국연합회, 기감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대하여 선교, 민족, 여성, 평화, 차세대 지도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본 협의회를 결성하여 지난 10월 28일(월)~30일(수) 서울에서 제15회 한·재일선교협의회를 개최했다.

재일 측 10명, 한국 측 36명이 참가했다. 개회에서는 김경은 회장(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 5년 만에 선교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기쁨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최소영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 총무)가 “깨뜨리는 여성, 깨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30년간의 선교협의회 발자취를 돌아보고, 재일-한국 측의 현황보고와 문제제기, 발제, 그룹토의가 있었다. 협의회 기간 중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교협의회(NCCK) 사무실을 방문하고, 현장학습으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정의기억연대에 방문, 그리고 수요시위에 참가했다.

각 교단 방문에서는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환경은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 평화를 실현하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쓰임 받는 인재를 양성하며,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일꾼, 교회여성이 되기를 소망한다. 마지막 날 폐회예배에서는 재일 측이 특별찬양을 드리고, 조은주 목사(우베)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예배 후 한·재일 선교협의문 낭독과 결의사항을 승인했다.

이번 선교협의회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보고 : 서부여성회 회장 양율자)



## CCA아시아 신학자 회의 개최 30년간의 선교협의회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난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의 ‘제10회 아시아신학자회의(CATS-X)’가 개최되었다. CATS는 아시아가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신학적 분석과 공유를 목적으로, 1997년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1999년 인도 방갈로르, 2001년 인도네시아 유크야카르타, 2003년 태국 치앙마이, 2006년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제10회를 맞이한 이번 회의에서는 CATS발족과 니케아 공의회 1700년 기념식이 말레이시아 복음주의 루터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Echoes of Nicaea: 신앙의 영속과 일치의 수용(Echoes of Nicaea: Enduring Faith and Embracing Unity)’을 주제로 강연과 세부 주제에 따른 발표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00여명의 아시아 신학자들과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활발한 신학적 토론과 교류의 장이 되었다.

첫 번째 강연에서 자야기란 세巴斯찬 박사는 분단된 세계 속에서 아시아 교회의 다양한 역사, 신학, 전례와 교회론적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성을 선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교회론의 일치성’, ‘생태계 중심의 연대’, ‘사이버적 연합’과 ‘신앙의 영속성과 일치의 수용: 아시아의 에큐메니칼 대응’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6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친 후 CATS는 성명을 통해 아시아 교회의 역사, 소외된 현실, 환경문제, 인공지능, 교회의 미래, 이민의 현실, 아시아 교회의 삶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을 니케아 신조를 통해 다시 한 번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보고 : 정시온목사)



## 일본그리스도교회와 선교협력위원회 개최

2024년 11월 21일(목) KCCJ 동경교회를 장소로 하여 일본그리스도교회(CCJ)와 선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후 1시~3시까지 제1부로서 특별 강연회(대면·온라인 병용)를 실시했다.

「식민지 주의와 인종 주의에서 이스라엘과 일본의 교차를 생각한다」~「디아스포라」 적인 삶의 시점에서~라는 주제로, 강사로는 하야오타카미(早尾貴紀) 교수(동경경제대학)를 초청하여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되었는가? 그것은 유럽에서의 유대인 박해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 그것은 동시에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의 대륙 침략도 관계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오후 3시 30분~5시 30분까지는 제2부 순서로 개회기도를 양영우 목사(총회장·무코가와교회)가 드리고 나카이에 게이수케(中家契介) 목사(CCJ대회 의장·仙台黑松교회)로부터 메시지

가 있었다. 그 후, 선교 협력위원회가 있어 양교단의 보고 후, 앞으로 양교단에서 선교협력을 진행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의견을 토론했다.

미요시아키라(三好明) 목사(CCJ·志木北교회)의 폐회기도로 끝났다. 참가자는 대면 25명, 온라인 20명이었다.



### <연말 연시 업무 안내>

총회 사무국은 연말 연시를 아래 기간 휴업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1월 3일》

##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와 일본기독교단 동일본 각교구와의 기념 연수회에 참가하여 —「예수님은 어디에? 누구와?」—

片岡謁也(가타오카 카즈야) 목사 (日本基督教團東北教區 若松栄町教会)

2024년 10월11일~12일, 깊어가는 가을 낮코 올리브사토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 KCCJ) 관동지방회와 일본기독교단(이하 UCCJ) 동일본 각 교구와의 기념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KCCJ에서 11명, UCCJ에서 12명이 참가하여 단풍이 물든 햇살 속에서 깊은 배움과 교류의 시간을 뜻깊게 맛보았다.

같은 해 9월 16일 KCCJ 오사카교회에서 양 교회의 <협약> 체결 40주년 기념 집회가 열렸고,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동일본에 있는 양 교회도 교류를 강화하자는 KCCJ 관동지방회의 요청으로 이번 연수회가 실현되었다. 이번 연수회 개최를 위해 KCCJ가 일본 측의 참가비 및 체제비를 전액 부담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북교구에서 온 두 명의 참석자는 아이즈(会津) 지방에서 봉직하고 있으며, 아이즈에서 남쪽으로 100km, 맑은 날씨의 길을 단풍을 즐기며 낮코까지 왕복했다.

UCCJ에서는 오우(奥羽), 도호쿠(東北), 관동(関東), 도쿄(東京), 서도쿄(西東京), 가나가와(神奈川) 교구에서 교구장 및 관계 위원들이 참석하여 각 교구에서 교류의 현황과 과제, 개인적 관계 등을 보고했다. 각 교구에 있는 양교회의 교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종회에 상호 내빈 초청, 목사 취임식이나 교사 연수회 참가 등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고도 유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강연은 <폭력의 세계에서 온유하게 살아가기 – 예수의 화해의 삶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김신야목사(요코스카교회/관동지방회 부회장)께서 맡아 주셨다. 자신의 출신부터 성장 과정에서 느낀 점,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원동력과 이 나라에 넘쳐나는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마디 한 마디에 참석자 모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마침 사흘 전 필자의 아내 가타오카 테루미가 김신야목사의 럭쿄(立教)대학 대학원 세미나에서 ‘후쿠시마로부터의 메시지’를 담당한 바 있다. 그리스도인의 인권,

정의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바로 양 교회에 속한 신앙의 친구들에게 공통된 과제임을 거듭 상기시켜 주었다.

필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는 역시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된 일이다. 직책상 주일예배 외에는 센다이시에 개설한 ‘이재민 지원센터 에마오’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역에 가장 먼저 반응해 주신 분들이 바로 KCCJ 여러분이다. 기도는 물론 재정적 지원과 자원봉사자 및 사역자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

동북교구 보고에서 필자는 신학생 시절의 한 친구와의 만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KCCJ의 목사가 된 그 친구로 인해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의 곁에 서는 것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계속 물음으로써 현재의 필자 자신의 ‘현장’이 있다. 퍼자별부락, 오키나와, 아이누,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후쿠시마……

“예수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은 앞으로도 양교회의 공통된 물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물음에 함께 마주하는 가운데 공동사역의 실질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川崎教会 배중도 명예장로가 소천 민족차별철폐운동에 앞장 서서 진력



가와사키교회 배중도 명예장로가 2024년 11월 23일 소천하여 김신야 목사의 집례로 11월30일 11시부터 장례식을 거행했다. 향년 80세.

故·배중도 명예장로는 1944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1976년 이인하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1986년 장로로 장립되어 평생 가와사키교회를 섬겨왔다.

故人은 1974년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창립 당시에는 주事, 그리고 所長으로서 민족차별철폐운동에 앞장섰으며, 가와사키 후레이아이관 관장, 青丘社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 배중도 장로님을 애도하며

가와사키교회 배중도 명예장로가 11월 23일 심야 자택에서 소천했다.

배 장로는 1974년 종회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RAIK(재일동포문제 연구소)의 주임으로 이인하 목사와 함께 민족차별철폐운동,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앞장섰으며, 1987년 외기협 결성 당시에는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오랜 지역운동의 결실로 1988년 봄, 공설 민영으로 가와사키시 후레이아이관이 사쿠라모토에 세워졌을 때, 가와사키교회를 모체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青丘社’가 운영을 맡게 되었고, 배 장로는 관장으로 부임하여 다문화 공생의 도시 만들기에 오랜 기간 헌신해 왔다. 또한 외기협을 비롯한 일본의 여러 교회들이 매월 후레이아이관을 방문해 재일 한국·조선인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배 장로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연수 코스’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 1~2년간 힘겨운 투병생활을 해왔지만,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일본 사회의 부조리에 과감히 맞선 재일동포 2세로서, 일본인과의 화해와 공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 장로의 말은 재일동포 청년들과 많은 일본인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사토 노부유키(RAIK 고문)

## 2025年度 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

「2025年度牧師·伝道師考試および宣教師加入考試」を以下のように実施します。考試の詳細と請願書については総会のウェブサイト (<http://kccj.jp>) をご参照ください。

一. 日 時 : 2025年3月10日 (月)

- 10:00~ オリエンテーション
- 10:30~17:00 筆記試験
- 17:00~ 面接

\*試験終了後、順次面接を行います。

二. 場 所 : 在日韓国基督教会館 (KCC)

三. 申請(書類提出) : 2025年2月10日 (月) 必着

四. 提出先 : 総会事務局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5

電話番号 (03)3202-5398 FAX (03)3202-4977

神学考試委員会

委員長 金聖孝、書記 朴栄子

(問い合わせ TEL 090-6677-3492)